

뜨락은 크지 않아도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불러온 그이의 탄생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온 나라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백두산밀영고향집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온다.

대문도 울바자도 따로 없는 추너낫은 귀틀집,

여기 이 작은 귀틀집의 크지 않은 뜨락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백두산의 눈보라를 축복의 꽃보라마냥 맞으시며, 항일전의 총성을 자장가처럼 들으시며 빨찌산의 아들로,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아들로 성장하시였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의 뜨락가에 뚜렷이 찍혀지던 우리 장군님의 발자취는 조국강산에 아로새겨진 거룩한 혁명생애의 첫 자욱이였고 울울창창한 밀림속에 조용히 울리던 그이의 발자욱소리는 이 땅의 위대한 변천을 예고하는 새시대의 장엄한 전주곡과도 같았다.

고향집의 뜨락은 넓지 않았으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애국의 큰뜻을 키우시였다.

하거늘 절세위인의 위대한 성장의 나날이 흘러간 뜻깊은 고향집뜨락가에 우리 어찌 숭엄한 마음을 정히 세우지 않을수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한생, 그이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으신 불멸할 업적을 되새기며 우리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한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의 뜨락, 진정 이는 비록 크지 않아도 천출위인이신 우리 장군님께서 조국을 품에 안으시고 성장의 거룩한 자욱을 새기신 크나큰 뜨락, 조국강산이 다 안겨있는 가장 큰 뜨락임을.